도 · 시군, 대설 · 한파에 입체적 대응 '빛났다'

도지사-시장 · 군수 합동 선제적 대처로 인명 등 재산피해 미발생… 1주일간 3300여 공무원들 투입 · 피해 최소화 주력

도내 전역에 최근 1주일여에 걸친 대설과 강풍, 한파 등 기상특보가 내린 상황에서도 인명과 재산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2024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한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전체에 내려졌던 특보(대설·한파·강풍·풍랑)에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합동으로 선제적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주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6일부터 10일사이 도내에는 정읍이 최고 33.6㎝, 고창 28.1㎝, 순창 24.1㎝ 등 평균 16.2㎝의 눈이 쏟아졌는가하면 동부권지역은 영하 15도 이하로 강추위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자치도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즉시 초기대응 체제에 돌입해 재해대책본부 비상1단계, 비상2단계에 돌입하는 등 연인원 3,354명의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펼치며 기상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실력이 이번 기상상황에서도 빛을 발했다.

도는 해기차로 습설이 예상됨에 따라 강설 이전인 1월 6일까지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 1,329개소 긴급 점검 및 지주 보강 안내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실시했다.

또, 대설특보가 발효된 9일까지는 4,533개소 취약시설 예찰 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하우스 천장 개방 등 936개소의 현장 지도와 더불어 도로 8개 노선, 여객선·어선·공원탐방로 전체를 사전통제 등 피해 예방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 주관 도와 시군 단체장, 도 실국장이 함께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비롯해 행안부장관 직무대행 주재 회의 등 도-시군-중앙 등 합동 대책회의 7차례 등 기상특보 해제 전까지 매일 기상 상황별 맞춤형 대책회의를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 대응 상황을 점검해 나갔다.

취약시설 거주 도민 사전대피 및 도로 사전통제 강화, 제설작업 선제적 및 사후까지 지속 실시, 낙상사고 예방 등 도 재대본부장(도지사), 중대본부장 지시사항을 전파해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더불어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 소속 사무관들을 7일부터 10일까지 전 시군에 현장상황 관리관으로 파견해 시군 재대본 가동 상황, 도로 제설대책, 붕괴 위험지역 주민 대피 및 통제 여부 등을 현장 지원하고, 시군 재대본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도-시군이 피해 최소화에 공을 들였다.

실제, 정읍시 비닐하우스에 거주중인 도민에 대해서는 7일부터 8일까지 사전에 일시 대피시켰으며, 도내 비닐하우스 거주 4세대는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통장을 중복으로 지정해 가정 방문과 수시로 안부전화를 실시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파 대비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파쉼터 5,458개소, 응급대피소 20개소, 한파 저감시설 4,298개소 운영하고, 생활지원사를 통한 취약계층 3만 5,000명을 관리하며, 한파쉼터와 응급대피소 가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했다.

이밖에도 대설·한파 대비 '외출 자제, 내짚 앞 눈치우기 및 지붕 눈치우기 등'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TV, 재난문자, 전광판,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 도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효과도 톡톡히 거뒀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남은 겨울철 대책기간(~3월 15일)까지 도-시군-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를 통해 겨울철 재해취약시설 안전조치등 도민과 도내기업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속적인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우수 사회적경제 제품 최대 20% 할인'

전북특별자치도, 설맞이 프로모션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특별 할인전… 30일까지 진행

온라인 70개 · 오프라인 180개 제품 대상… 풍성한 할인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알뜰한 소비를 실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착한 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기업 79개사가 함께 참여한다.

온라인 할인전은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 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을 통해 진행되며, 42개 기업의 70여 개 제품이 오는 30일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도민들은 제품 구매 시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할인전은 금암동 종합경기장 부근에 위치한 생생나눔 공동판매장에서 열린다.

37개 기업의 180여 개 제품이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알리고, 착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위축된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준비한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팀(☎063-280-37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효성 강화 위한 간담회 가져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16일 전주 완산구 이중본에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8월 부천 호텔 화재와 인천 아파트 화재 발생 후,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마련된 자리로, 전북소방시설관리협회 전북지회장과 협회 관계자들, 그리고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과 팀장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 자율 안전관리체계의 정착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부천 호텔 화재와 인천 아파트 화재 등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초점검 실효성 확보 방안, △주거 공간에 대한 전수 세대점검의 효율적 완료 방안, △민간 자율로 변경된 이행계획의 처리 방안, △민간 점검업체와 소방서간 합동 자체점검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관서별로 반기 1회 실시하는 점검업체와 소방서의 합동 자체점검을 통해 점검업체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합동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체와 화재안전조사단이 함께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 개최

3800억원 규모 전북 자체 지원사업 · 정부 지원사업 안내

ESG 경영 교육 · 비대면 상담창구 운영…실질적 도움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15일 전북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 경영 지원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중기청을 비롯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수출 △자금 △창업 △기술개발 △보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자치도의 자체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먼저, 전북중기청에서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 후, 각 주관기관에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사업'(12개 분야, 6,196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6개 분야, 4조5천억원) △창업진흥원 '창업기업지원'(18개 분야, 3,600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지원'(27개 사업, 1조 5,214억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각 보증제도 안내 등 분야별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3,800억원 규모의 100여개의 자체 지원사업과 제도를 소개하고,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북자치도의 R&D사업과 스마트공장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ESG경영 활성화 교육이 포함돼 기업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ESG 경영의 기본개념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중기청은 종합설명회 이후,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무주군을 시작으로 8개 시군(무주, 익산, 군산, 남원, 김제, 완주, 부안, 정읍)을 권역별로 묶어 '찾아가는 시군 시책설명회'를 개최 계획이다.

설명회 기간 중에는 각 기관의 사업 담당자와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상담 창구를 운영해 실질적인 상담과 문의를 지원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이상열 신임 본부장 취임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4일 이상열 신임 본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상열 신임 본부장은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산업위생관리)를 취득하고 산업위생관리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1996년 공단에 입사해 △광주광역본부 광역사업부장 △광주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장 △전북서부지사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바 있다.

이상열 신임 본부장은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활동과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도, 지방보조금 관리 대폭 개선

3억원 이상 보조사업의 실적검증 전문 감사인 운영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보조금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3억원 이상 보조사업의 실적검증 의무화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검증된 전문 감사인 후보군(pool)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적검증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업성과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보조사업자가 감사인을 직접 선정하여 보조사업을 검증하는 방식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검증을 어렵게 만든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도에서 제공하는 후보군 내에서 감독부서가 선정한 감사인이 보조사업을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객관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3월 중 공모 및 심사를 통해 감사인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후보군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감사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여 실적검증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전문 감사인 제도가 앞으로 지방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지난해 전북자치도가 추진한 '일 혁신 프로젝트'에서 발굴된 사례로, 그 의의가 크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집행, 결산의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보조사업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3년 연속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예산부서의 사전검토 단계를 추가해 평가 절차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500만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자는 수행하는 모든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2024년 회계연도 보조사업의 교부신청서와 정산보고서 등이 공시 대상이며, 보조사업자는 올해 4월 말까지 관련 정보를 등록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25 - 96호

2030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람 · 공고

'2030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람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읍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2. 공람기간 및 장소
   - ○ 기 간 : 2025. 01. 17. ~ 02. 07.
   - ○ 장 소 : 정읍시청 도시과(충정로 234, 4층)
3.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 서면(붙임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8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 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주민 의견청취로서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여향평가(초안) 도서 : 게제생략(공람장소 비치)

2025년 1월 17일 정 읍 시 장